

IBCT에 기반한 커플관계 다름 수용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임 아 영¹⁾

이 훈 진[†]

본 연구에서는 커플관계에서 서로의 다름을 수용하는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보고식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였다. 커플치료에서 수용의 중요성을 강조한 Jacobson과 Christensen(1996)의 통합적 행동 커플치료(Integrative Behavioral Couple Therapy: IBCT)를 이론적 틀로 삼고, 커플관계에서의 다름 수용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다름을 통해 친밀하고 발전된 관계로 나아가고자 노력하는 태도’로 정의하였다. 또한 IBCT의 주요 개념을 바탕으로 커플관계 다름 수용 태도 척도의 구성요소를 도출하였으며, 기존의 커플 대상 척도들과 수용 관련 척도들을 참고하여 75개의 예비문항을 마련하였다. 연구 1에서 대학생 327명과 온라인으로 모집한 성인 66명을 대상으로 문항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름에 대한 인내, 다름에 대한 역지사지, 다름에 대한 존중, 다름을 통한 성장, 다름에 대한 거리두기의 5요인, 22문항으로 이루어진 커플관계 다름 수용 척도를 개발하였다. 연구 2에서는 일반인 305명과 대학생 136명을 대상으로 커플관계 다름 수용 척도와 관련 변인들을 측정하였고, 이 중 45명으로부터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본 척도가 5요인으로 이루어졌음을 재검증하였고, 수렴 및 변별타당도, 준거타당도,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양호한 수준임을 밝혔다. 또한 다섯 개의 집단요인과 다름에 대한 수용이라는 일반요인을 가정한 쌍요인(Bifactor) 모형의 적합도도 양호하여, 단일차원으로서 총점을 사용하는 것도 타당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커플관계 수용 태도는 커플관계 만족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 특히 기혼자의 관계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를 위한 논의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IBCT, 커플관계 다름 수용 척도, 커플관계 만족도

1)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학생, limay84@snu.ac.kr

† 교신저자: 이훈진,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심리과학연구소, 교수,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Tel: 02-880-5997, E-mail: hjlee83@snu.ac.kr

본 연구의 목적은 커플관계에서 서로의 다름을 수용하는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자기보고식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는 것이다. 서로 다르다는 것은 흔히 커플관계 초기에는 매력적인 요소로 다가오나, 곧 분쟁의 씨앗이 된다(Jacobson & Christensen, 1996). 기존 연구들은 파트너 간 차이를 갈등의 원인으로 보고, 생활 전반의 여러 영역에 걸친 불일치도를 관계 부적응의 지표로 삼기도 하였다(Spanier, 1976). 그러나 사랑하는 사이더라도 서로의 차이로 인한 불편과 갈등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관계가 지속되면서 타협하기 힘든 논쟁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도 커진다(Christensen & Jacobson, 2014). 따라서 장기적으로 만족스러운 커플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성숙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Gaunt, 2006; Hur & Ko, 2008; Hwang & Ko, 2010; Kim & Park, 2010)은 주로 커플관계에서 서로 달라서 겪는 불화나 갈등을 다루었고, 서로의 차이를 대하는 자세나 수용적 태도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커플치료 프로그램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실제로 대다수의 커플 치료들은 일정 부분 수용을 함양하기 위한 절차와 기법들을 사용하고 있다(Jeong & Shin, 2007, Lee, 2006; Lee, 2011). 그러나 파트너 간 다름에 대한 수용(acceptance)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떠한 심리적 과정을 거쳐 수용에 이를 수 있는지 등 이론적 개념 및 작용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밝힌 연구는 부족하다. 또한 커플관계에서 서로의 다름을 수용하는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 도구도 마땅치 않다.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다름에 대한 포용은

현대 사회 구성원들에게 필수적인 덕목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정치적, 사회적 차원의 수용적 태도를 측정하는 다양한 척도들이 사용되고 있다. 관용성 척도(Kim & Kim, 2006), 다문화 수용성 척도(Park, 2013), 다양성 수용 척도(Lee, 2014) 등은 자기와는 다른 삶의 방식을 지닌 사람들이나, 다른 인종, 문화,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측정하는 도구들이다. 그러나 해당 척도들은 공동체 사회의 일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거시적 차원의 수용성을 측정하고 있다. 커플관계는 물리적, 정신적으로 강력한 결속력을 지니기에, 서로의 다름을 수용하는 일이 더욱 어려울 수 있다. 서로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해 오히려 객관적인 시각에서 상대를 조망하기 어려울 수 있고(Long et al., 1999), 관계에 대한 비합리적인 신념을 가지게 될 가능성도 크다(Kim & Kwon, 2009; Lee & Seo, 2011). 따라서 커플관계라는 특수한 맥락에서 개인적 차원의 수용 태도에 초점을 맞춘 도구가 필요하다.

임상 및 상담 심리학 분야에서 수용 관련 연구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척도로는 ACT(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의 심리적 수용(psychological acceptance)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AAQ(Acceptance and Action Questionnaire; Hayes et al., 2004)가 있다. 심리적 수용이란 개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사고나, 감정, 감각 같은 사적 경험들을 회피하거나 통제,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Hayes, 1994). 커플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개인의 반응을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AAQ도 활용 가능하겠으나, AAQ를 통해 파트너와의 다름을 수용하는 정도를 측정하기에는 몇 가지 어려

움이 예상된다. 첫째, AAQ는 대인 간 상호작용 맥락에서 발생하는 경험이 아닌 개인의 내적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둘째, AAQ가 측정하는 대상이 불안과 우울을 중심으로 하는 광범위한 영역이기 때문에, 커플관계 내 서로의 다름을 둘러싼 구체적인 경험에 한정 지어 적용하기 어렵다. 이에 Lillis와 Hayes(2008)는 AAQ의 광범위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구체적인 문제에 AAQ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역에 맞춰 특화된 척도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한편, 커플관계에서 파트너에 대한 수용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로는 Christensen과 Jacobson(1997)이 개발한 파트너 행동 빈도 및 수용 가능성 척도(Frequency and Acceptability of Partner Behavior Inventory: 이하 FAPBI)가 있다. Doss와 Christensen(2006)에 의해 본 척도에 대한 구성 타당도 검증이 이루어졌으며, FAPBI는 애정(Affection), 친밀(Closeness), 위반(Violation), 요구(Demand)의 4요인으로 나타났다. 애정과 친밀 요인은 파트너가 행하는 긍정적 행동들의 예시로, 위반과 요구 요인은 파트너의 부정적 행동 예시들로 구성된다. 국내에서는 Lee(2011)에 의해 FAPBI가 번안되었으며, 파트너의 긍정 및 부정 행동에 대한 수용도가 높을수록 결혼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FAPBI는 파트너의 특정 행동을 자신이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 응답하게 함으로써,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파트너에 대한 수용 정도를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첫째, FAPBI에서 측정하는 수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FAPBI의 지시문에는 파트너의 행동 빈도를 기록하고, 이를 얼마나 받아들일 만한지(how

acceptable it is to you) 0에서 9점 리커트 척도 상에서 평정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받아들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Jeon(2010)는 FAPBI를 사용하여 대상관계수준과 이성관계 집착행동 간의 관계에서 파트너 행동 수용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대상관계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파트너의 부정적 행동 수용이 조절효과를 보였으나, 대상관계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유의한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대상관계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우, 파트너의 행동을 수용한다는 것이 파트너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고 포기하는 행동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제안되었다. 또한 한국형 수용태도 척도(Kim et al., 2016) 제작 과정에서 국내 성인을 대상으로 수용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하였을 때, ‘수용이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수용하기 위해 내 입장을 포기한다.’, ‘수용이란 희망을 버리고 체념하는 것이다.’ 같은 타율적 의미의 수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즉 수용 개념의 모호함으로 인하여, 응답자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고, 이를 통해 측정된 값이 동일한 형태의 수용을 반영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파트너에 대한 수용 태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용을 구체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FAPBI가 측정하는 수용의 대상이 파트너의 특정 행동에 국한된다는 점이다. FAPBI에 포함된 긍정적, 부정적 행동의 항목들은 총 20개에 불과하여 커플관계에서 수용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영역들을 포함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부부관계 적용 척도(Lee & Kim, 1995; Spanier, 1976)의 부부 일치도 문항을 살펴보면, 종교문

제나 생활철학(인생관), 옳고 그른 행동의 기준 같은 영역에서 부부간 의견 차이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나, FAPBI는 이러한 영역들을 포괄하지 못한다. 또한 수용의 대상이 구체적 행동 수준에 맞춰져 있어서, 서로의 다름에 대해 가지는 전반적인 태도로서의 수용을 측정하기 어렵다. 셋째, FAPBI가 지니는 또 다른 한계로는 파트너에 대한 수용의 정도가 파트너의 행동 빈도에 달려있다는 인상을 준다는 점이다. FAPBI는 구조상 지난 한 달간 파트너가 행한 긍정적, 부정적 행동의 빈도를 먼저 기록하고, 이 빈도를 자신이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지 평정하게 되어있다. 일반적으로 파트너의 긍정적 행동의 빈도가 증가할수록, 부정적 행동의 빈도가 감소할수록 이에 대한 수용 정도가 증가할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Doss와 Christensen(2006)의 연구에서 수용 정도와 파트너의 긍정 행동 빈도 간의 상관은 .47에서 .73, 부정 행동 빈도와는 상관은 -.51에서 -.73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만일 수용이라는 것이 상대의 행동 여부에 달린 것이라면, 결국 파트너의 행동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다. FAPBI는 자신의 태도보다는 파트너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수용의 본질적인 측면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커플관계 내에서 파트너와의 다름을 수용하는 개인의 심리적 과정에 초점을 맞춘 측정 도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자는 통합적 행동 커플치료(Integrative Behavioral Couple Therapy: 이하 IBCT) 모델(Jacobson & Christensen, 1996; Jacobson et al., 2000)을 이론적 틀로 삼아, ‘다름에 대한 수용’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수용의 구성요소를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IBCT

는 기존의 전통적 행동 치료에 수용의 요소를 강화한 새로운 치료 모델로, 커플 간 타협하기 힘든 갈등, 극복할 수 없는 차이에 대한 처방으로 수용을 제시한다. 불화를 겪는 커플을 대상으로 IBCT의 치료 효과는 널리 검증됐으며, 행동 수정을 목표로 하는 전통적 행동 치료에 비해 문제의 재발률이 낮고, 치료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ristensen et al., 2006; Sevier et al., 2015)

IBCT에서는 수용의 주된 구성 요소로 첫째, 문제를 친밀함의 매개수단으로 전환하는 것, 둘째,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내려놓는 것을 꼽고 있다(Jacobson & Christensen, 1996). IBCT에서는 서로의 차이를 갈등의 원인이라 여기지 않으며, 문제를 사라지거나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제를 친밀함의 매개수단으로 전환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라고 여겨지는 서로의 차이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더욱 친밀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변화 시도 내려놓기’란 상대방을 자신이 이상적으로 여기는 파트너로 개조하려는 노력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한다(Lee, 2006; Lee, 2011). 따라서 IBCT에서 말하는 수용이란, 상대를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내려놓는 것과 더불어, 커플이 겪고 있는 문제를 통해서 커플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포함하는 적극적인 의미의 수용이라고 볼 수 있다. Jacobson과 Christensen(1996)은 수용이 단순히 체념이나 순종, 복종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으며, 상대를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내려놓으면, 이를 위해 쏟아왔던 심리적 에너지의 방향이 전환됨으로써, 자연스레 긍정적인 변화들이 떠오를 수 있다고 보았다(Jacobson & Christensen, 1996; Kim et al., 2002).

그렇다면 어떻게 수용에 이를 수 있을 것인가? IBCT에서는 수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 가지 주요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공감적 함께하기(empathic joining), 둘째, 한결같이 초연하기(unified detachment), 셋째, 인내심 구축하기(building tolerance)가 이에 해당한다(Jacobson & Christensen, 1996). 먼저 공감적 함께하기란, 공감적 자세로 자신들의 문제에 참여하도록 도움으로써 수용을 이끌어내는 전략이다. 상대를 탓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상대의 고통을 이해함으로써 문제를 고통의 관점에서 재공식화 하고, 서로의 근본적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음으로 한결같이 초연하기는 관찰자의 시점에서 문제를 관찰하고, 문제로부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돕는 전략이다. 이는 문제에 대한 일종의 객관적이고 지적인 분석을 의미하며, 상위인지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자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내심 구축하기는 상대의 부정적인 행동으로 인한 고통에 둔감해지도록 하여, 상대가 변하지 않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부정적 측면에서 긍정적 측면을 찾아보거나, 부정적 행동을 의도적으로 시연하기, 자기 돌봄(self-care) 대책 마련하기 등을 시도해 본다(Jacobson & Christensen, 1996; Kim et al., 2002). 인내심 구축하기 전략은 앞서 두 전략과는 수용의 질적인 수준에서 다소 구분되는 전략이다(Jacobson & Christensen, 1996; Mairal, 2015). 공감적 함께하기와 한결같이 초연하기가 친밀감 증진이라는 깊은 수준의 수용을 위해 고안된 반면, 인내심 구축하기는 상대방으로 인한 고통을 감소시킴으로써 상대를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내려놓는 것에 초점을 두며, 낮은 수준의 수용 촉진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IBCT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서로의 차이, 다름에 초점을 맞추어 ‘다름에 대한 수용’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다름을 통해 친밀하고 발전된 관계로 나아가고자 노력하는 태도’로 정의하였다. 이는 통제 시도를 내려놓는 것을 강조하는 일반적인 수용 개념보다는 적극적인 의미의 수용으로 볼 수 있다. 또한 IBCT 주요 개념들을 바탕으로 ‘다름에 대한 수용’을 구성하는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조작적으로 재정의하였다.

먼저 ‘문제를 친밀함의 매개수단으로 전환하기’를 토대로 ‘다름을 통한 성장’ 개념을 도출하였다. 문제를 통해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친밀해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듯이, 서로의 다름도 이를 보는 관점과 접근 방식에 따라 커플관계를 결속시키는 매개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름을 통한 성장은 다름의 긍정적 측면과 기능에 주의를 기울이고, 다름을 통해 더욱 친밀하고 발전된 관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태도로 정의하였으며, 적극적 수용 요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변화 시도 내려놓기’를 토대로 ‘다름에 대한 존중’ 개념을 도출하였다. 다름에 대한 존중이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상대를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는 태도로 정의하였다.

다름을 통한 성장과 다름에 대한 존중이 수용의 결과적 측면을 반영하는 개념이라면, IBCT의 수용 촉진 전략(공감적 함께하기, 한결같이 초연하기, 인내심 구축하기)을 바탕으로 수용의 과정적 측면을 반영하는 구성개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각 전략이 함양하고자 하는 핵심 요소, 즉 수용을 위해

필요한 덕목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먼저 ‘공감적 함께하기’ 전략을 토대로 ‘다름에 대한 공감’ 개념을 도출하였다. 공감적 함께하기 전략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문제를 고통의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고 연민을 가지는 것이다(Christensen & Jacobson, 2014; Jacobson & Christensen, 1996). 따라서 다름에 대한 공감이란, 나의 관점에서 벗어나 파트너의 관점에서 서로의 차이를 바라보고, 상대방의 고통 및 노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한결같이 초연하기’ 전략을 토대로 ‘다름에 대한 거리두기’ 개념을 도출하였다. 한결같이 초연하기 전략의 목표는 문제 및 상호작용 패턴을 관찰함으로써 문제에 대해 자각하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다(Christensen & Jacobson, 2014; Jacobson & Christensen, 1996). 이를 서로의 다름에 적용해 보자면, 다름에 대한 거리두기란, 서로의 다름과 이로 인한 영향력을 자각하고, 다름으로 인해 파생된 부정적 생각 및 정서로부터 적절히 거리를 두는 태도로 정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내력 구축하기’ 전략을 토대로 ‘다름에 대한 인내’ 개념을 도출하였다. 인내력 구축 전략이 지향하는 목표는 파트너의 부정적인 행동을 감당하는 능력이 향상되고, 고통을 피하거나 벗어나기 위한 시도를 중단하는 것이다(Christensen & Jacobson, 2014; Jacobson & Christensen, 1996). 따라서 다름에 대한 인내는 서로의 차이와 이로 인한 불편을 견디고자 노력하며 서로 달라서 발생하는 갈등을 회피하거나 관계를 단절하지 않는 태도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이 IBCT 이론을 바탕으로 도출된 구성개념을 반영한 커플관계 다름

수용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1에서는 문헌고찰 및 기존 커플관계 관련 척도와 수용 관련 척도들을 참고하여 다섯 개의 구성개념에 부합하는 문항들을 제작하였다.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예비문항을 완성한 뒤, 커플 교제 경험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 문항을 선정하였다. 연구 2에서는 커플관계 다름 수용 척도를 기혼 및 미혼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구조의 적합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름에 대한 수용이 IBCT 이론으로부터 도출된 동일차원의 5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한 5요인 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선정하였다. 경쟁모형으로는, 척도의 모든 문항들이 다름에 대한 수용이라는 단일 요인에 속하는 1요인 모형, 그리고 수용의 과정적 측면에 해당하는 수용과정 요인과 수용의 결과적 측면에 해당하는 수용결과 요인으로 이루어진 2요인 모형을 선정하였다. 한편, IBCT에서는 공감적 함께하기와 한결같이 초연하기, 인내심 구축하기를 주요 수용 촉진 전략으로 제시하였으나, 인내심 구축하기는 다른 두 전략과 달성하고자 하는 수용의 수준에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Jacobson & Christensen, 1996; Marial, 2005). 따라서 인내심 구축하기 전략을 바탕으로 도출된 다름에 대한 인내는 다름에 대한 공감 및 거리두기와는 다른 차원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다름에 대한 인내를 별개의 요인으로 가정하고, 나머지를 수용과정 요인과 수용결과 요인으로 가정한 3요인모형을 경쟁모형에 추가하였다. 또한 모든 문항의 공통 분산을 공유하는 ‘다름에 대한 수용’이라는 일반요인과 일반요인이 설명하지 못하는 문항의 분산을 공유하는 다섯 개의 집단요인

으로 구성되었다고 가정한 쌍요인(Bifactor) 모형도 경쟁모형으로 포함하였다. 이와 더불어 커플관계 다름 수용 척도의 신뢰도와 수렴 및 변별타당도, 준거타당도, 증분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거친 후 진행되었다(IRB No. 1901/003-008, 1909/002-002).

연구 1. 커플관계 다름 수용 척도 개발

IBCT 이론에 기반하여 도출된 다섯 개의 구성 개념(다름을 통한 성장, 다름에 대한 존중, 다름에 대한 공감, 다름에 대한 거리두기, 다름에 대한 인내)을 반영한 자기보고식 척도를 제작하기 위하여 기존 커플 대상 척도와 수용 관련 척도들을 검토하였다. 먼저 IBCT 이론을 다룬 저서와 기존 척도들을 바탕으로 103개의 문항을 제작하였다. 예비 문항 마련에 참고한 척도에는 커플탄력성 척도(Jeon & Yang, 2011), 부부조화 척도(Lee & Kim, 2010), 한국형 수용 태도 척도(Kim et al., 2016), 수용 및 행동 질문지 2판(Acceptance and Action Questionnaire-II; Bond et al., 2011; Heo et al., 2009), 낙인에 대한 수용 및 행동 질문지(Acceptance and Action Questionnaire-Stigma; Levin et al., 2014), 자기자비 척도(Self-Compassion Scale; Kim et al., 2008; Neff, 2003), 대인 관용 척도(Interpersonal Tolerance Scale; Thomae et al., 2016), 불일치에 대한 관용 척도(Tolerance for Disagreement Scale; Teven, et al., 1998), 고통 감내력 척도(Distress Tolerance Scale; Park, 2010; Simons & Gaher, 2005), 고통 감내력 부족 척도(Distress Intolerance Scale; McHugh & Otto, 2012; Seo & Kwon, 2014) 등이 있다.

이후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보유한 박사과정 이상 5인으로 구성된 평정단이 문항의 내용 타당도(문항이 해당 요인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와 전달성(문항의 뜻이 잘 이해되는지)을 평정하였다. 평정단은 연구미팅을 통하여 IBCT에 관한 서적과 논문을 바탕으로 IBCT 이론과 개념을 숙지하였고, 본 연구자가 제공한 구성개념에 관한 정의와 상세 설명을 바탕으로 문항 내용을 평정하였다. 1(전혀 아니다)에서 5(매우 그렇다)점으로 구성된 리커트 척도상에서 평정이 이루어졌으며, 타당도와 전달성이 모두 평균 4점 이상인 문항을 채택하였다. 타당도 또는 전달성이 평균 4점 미만이거나, 평정자 2인 이상으로부터 3점 이하의 점수를 받은 문항들은 제외하였다. 이 과정에서 총 103문항 중 12문항이 제거되었으며, 평정단의 의견을 취합하여 남은 문항들의 문구를 1차 수정하였다. 이후 임상심리 전공 석사 과정생 6인 및 박사과정 2인, 지도교수가 참여한 연구미팅 피드백을 바탕으로 2차 수정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5문항이 제거되었다. 최종적으로 평정단에 속하는 전문가 3인 및 지도교수와의 논의를 거쳐,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요인 간 중첩 가능성이 있는 11문항을 제거하고, 일부 문항의 표현을 가다듬었다. 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75문항이 채택되었다.

한편, IBCT에서는 갈등을 겪는 커플이 서로의 차이를 결함으로 인식하면서, 실제 모습보다 서로를 훨씬 더 다르게 지각하게 되는 양극화(polarization) 현상이 발생한다고 제안하였다(Jacobson & Christensen, 1996). 이를 고려할 때, 다름에 대한 수용도가 낮을수록, 서로를 더욱 다르게 지각하고, 달라서 겪는 고통 정도도 클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에

커플관계에서 서로의 차이를 주관적으로 어떻게 경험하는지 측정하기 위하여 지각된 다름의 정도 및 다름으로 인한 고통 질문지를 추가 제작하였다. 부부적응 척도(Lee & Kim, 1995; Spanier, 1976)의 부부 일치도 문항 14개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생활습관이나 의사소통방식의 차이, 자녀 양육방식의 차이같이 커플관계에서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는 항목들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제약이 있었다. 이에 부부적응 척도 중 부부 일치도 문항을 기초로, 부부갈등 척도(Choi, 1995; Lee, 1998)와 파트너 행동 빈도 및 수용 척도(Christensen & Jacobson, 1997; Doss & Christensen, 2006; Lee, 2011)를 참고하여 문항을 추가로 구성하였다. 그 결과, 경제관념, 애정 표현, 의사소통 방식, 종교문제, 생활습관 등 총 22개의 영역이 선정되었으며, 참여자가 직접 중요하다고 여기는 영역을 서술하는 기타 영역을 추가하여 총 23문항이 마련되었다. 문항의 내용은 전문가 평정단과 지도교수의 최종 검토를 거쳐 확정되었다.

방 법

연구대상

참여자는 서울 소재 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학부생 327명과 온라인 커뮤니티 홍보를 통해 모집된 68명이었다. 만 18세 이상 성인으로, 현재 커플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과거 적어도 1개월 이상 커플관계를 유지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커플관계란, 단순한 우정이 아닌 애정을 바탕으로 정식으로 교제

하는 연인이나 부부 사이로 정의하였다. 심리학과 연구 참여 시스템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모집 문건 및 연구 설명문을 보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참여자만 포함하였다.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연구 참여 시스템을 통해 모집된 학생들에게는 연구 점수를, 온라인 모집문을 통해 참여한 대상자들에게는 소정의 사례를 제공하였다.

총 398명 중 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363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참여자 중 남자는 158명(43.5%), 여자는 205명(56.5%)이었으며, 연령은 만 18~49세였다(전체 평균연령: 21.58세, $SD=4.26$). 현재 커플 교제 중인 사람이 199명(54.8%)이었고, 346명(95.3%)이 미혼이었다.

측정도구

커플관계 다름 수용 척도 예비 문항(75문항)

커플관계에서 나와 파트너가 태도나 성격, 가치관, 행동방식 등이 다르다고 느낄 때, 이를 수용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7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점(전혀 아니다)에서 7점(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리커트 척도상에서 자신과 일치하는 정도를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계수(Cronbach's α)는 .96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다름의 정도 및 다름으로 인한 고통 질문지

커플관계에서 서로 다르다고 느끼는 정도와 달라서 겪는 고통의 정도를 측정하는 질문지로, 총 23개 영역에 걸쳐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한다. 후반부 4개 영역은 기혼자만 응답하는 것으로, 본인의 부모 및 형제를 대하는 방식, 상대방의 부모 및 형제를 대하는 방식,

가사노동 및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에 대한 견해가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 23번째 영역은 기타 항목으로, 위의 22개에 포함되지 않은 중요한 영역이 있다면, 직접 기재하고 평정토록 하였다. 현재 커플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현재 파트너를, 현재 커플이 아니라면 과거 1개월 이상 커플이었던 파트너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파트너를 떠올리며 응답하도록 하였다.

분석

CEFA 3.04와 SPSS 2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탐색적 요인분석

커플관계 다름 수용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하여 문항 별 왜도를 살펴본 결과, 왜도는 -1.23에서 .78로 나타났다. 문항의 척도가 7점이고 왜도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피어슨 상관계수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총점-문항 간 상관이 .3 이하인 5문항을 일차로 제거하였고, 5문항 이외에 문항 제거 시 내적 일관성 계수가 상승하는 문항은 없었다. 문항 간 상관에서 다른 문항들과 상관이 .30이하의 문항은 제거할 것이 권장되고, .80이상이면 불필요하게 중복된 문항으로 본다(Field, 2009; Kline, 2011). 문항 간 상관이 .80이상인 경우는 없었고, .30이하인 경우가 10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는 다수의 문항에 해당하였으나, 개념적으로 구분되는 문항들로, 해당 문항을 제

거하여도 척도의 내적 일관성 계수가 원래의 .96에서 상승하지 않아 문항을 제거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에 70문항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추출 및 회전 방식으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과 요인 간 상관을 가정한 사각회전법(Direct Quartmin)을 적용하였다. 고유치가 1.0이상인 요인을 추출한 결과 12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요인별 고유치: 21.90, 5.52, 3.06, 2.55, 2.21, 1.75, 1.53, 1.43, 1.20, 1.10, 1.07, 1.03). 그러나 스크리 도표를 통해 고유치 감소 정도를 살펴보았을 때, 4에서 7요인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CEF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4요인에서 7요인으로 모두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4-7요인 구조의 적합도 지수(RMESA)가 모두 적절한 범위로 나타났으나, 4요인 모형에서는 요인 적재량이 .3미만에 해당하는 문항이 7개였고, 두 개 이상요인에 교차 부하되는 문항이 9개로 나타났다. 6요인 모형에서는 요인 적재량이 .3미만인 문항이 2개, 교차 부하되는 문항이 12개로 나타났다. 7요인 모형에서는 요인 적재량이 .3미만인 문항이 3개였고, 교차 부하되는 문항이 6개였으며, 일곱 번째 요인에 속하는 7문항 중 4문항이 교차 부하되었다. 한편, 5요인 모형에서는 요인 적재량이 .3미만인 문항이 4개였고, 교차 부하되는 문항이 5개로 나타났으며, 이들을 제외하여도 요인별 최소 문항 수가 4개 이상으로 안정적인 패턴을 보였다. 이에 5요인 모형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후 5요인으로 지정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반복하며 문항 선별과정을 거쳤다.

문항 선별을 위하여, 공통성이 .4미만인 문항, 요인 적재값이 .3이하이거나, 두 개 이상의 요인에 동시에 높은 부하량을 보이며 두

표 1. 커플관계 다름 수용 척도의 문항 및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 문 항 | 요인1 | 요인2 | 요인3 | 요인4 | 요인5 |
|--------------------------------------------------------|------|------|------|------|-------|
| | 인내 | 역지사지 | 존중 | 성장 | 거리 두기 |
| 65. 서로 달라서 생기는 불편을 감당하기 어렵다.* | .92 | .11 | .03 | .05 | -.06 |
| 64. 나와 파트너의 차이를 견디기 어렵다.* | .85 | .10 | .03 | -.06 | -.08 |
| 25. 서로 달라서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을 견디기 어렵다.* | .63 | -.01 | .19 | .02 | .05 |
| 48. 나와 파트너의 차이를 다루기 어렵다.* | .58 | -.09 | .06 | -.15 | .06 |
| 34. 서로 달라서 부딪힐 때면 자주 관계의 끝을 떠올리게 된다.* | .49 | -.08 | .08 | -.12 | .15 |
| 59. 서로 다른 점을 맞춰 가기 위해 파트너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할 때가 있을 것이다. | -.01 | .82 | .05 | -.04 | -.07 |
| 56. 서로 달라서 내가 힘든 만큼 파트너도 힘들 때가 있을 것이다. | -.09 | .71 | .00 | -.02 | .06 |
| 53. 서로 다른 점을 맞춰 가기 위해 파트너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21 | .70 | -.07 | -.02 | .03 |
| 9. 서로 다른 점에 대해 내가 참고 있는 만큼 파트너도 참아주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02 | .47 | .11 | -.06 | .16 |
| 18. 서로 달라서 문제가 생길 때, 나를 사랑한다면 파트너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02 | .02 | .84 | .08 | .05 |
| 46. 파트너가 나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때면, 파트너가 나의 방식에 맞춰주길 바란다.* | .07 | .05 | .76 | .01 | -.04 |
| 22. 나와 계속 함께하려면 파트너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00 | -.03 | .76 | -.08 | -.03 |
| 44. 파트너가 나의 기준이나 이상에 부합하지 않으면, 파트너를 나의 기준에 맞게 바꾸고 싶다.* | .04 | -.02 | .71 | -.05 | -.02 |
| 12. 서로 달라서 갈등을 겪을 때, 파트너가 변해야만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 .09 | .03 | .60 | .00 | .11 |
| 40. 서로 다르다는 것은 관계에 좋은 자극이 된다. | .00 | -.05 | .04 | .77 | .00 |
| 58. 서로의 차이를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05 | .16 | .01 | .77 | -.08 |
| 13. 서로의 차이를 통해 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06 | -.06 | -.07 | .70 | .12 |
| 50.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보다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 -.04 | .04 | .06 | .70 | -.03 |
| 10. 서로 다른 점을 통하여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09 | .26 | .03 | .43 | .07 |
| 32. 서로 다른 면이 부정적으로 느껴질 때, 나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 -.03 | .06 | .02 | .02 | .65 |
| 19. 서로의 차이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들더라도, 이러한 생각에 휘말리지 않고자 노력한다. | .30 | .07 | -.08 | -.01 | .51 |
| 8. 서로의 차이점에 대해 판단을 내릴 때, 나의 선입견이 개입하지 않도록 주의할 기운이다. | -.08 | .02 | .12 | -.10 | .47 |

*역채점 문항

요인 적재값 차이가 .10이하인 문항을 제거하였다. 이 과정에서 거리두기 개념을 반영하는 문항들이 공통성이 .4에 이르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공통성에 근거한 문항 제거 기준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상당히 보수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서는 요인구조의 타당성은 내용타당도 기준에서 접근해야 하며 통계적 수치가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제안하기도 하였다(Lee, 1995, 2010). 이에 전문가 평정단 3인과 함께 해당 문항들을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거리두기 개념을 반영하는 문항 중 공통성과 요인 적재량, 내적 일관성이 양호한 세 문항을 남겨두기로 하였다. 또한 ‘서로 다른 점에 대해 내가 참고 있는 만큼 파트너도 참여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문항도 같이 분류된 세 문항들과 상관이 높고, 요인 적재량이 양호하여 공통성이 .4에 미치지 못하지만 남겨두기로 하였다. 최종적으로 5요인, 22문항으로 요인분석을 재 실시하였다. 요인 별 문항과 요인 부하량은

표 1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22문항의 Kaiser-Meyer-Olkin (KMO) 값은 .907로 상당히 높았다. Bartlett 구형성 검정 결과, $\chi^2=3947.30$, $df=231$, $p<.001$ 로 나타났다. 5요인 모형의 총 설명량은 55.8%였고, 내적 일관성 계수는 .91, RMSEA 값은 .047로 나타났다.

요인 1은 총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1의 문항들은 주로 서로의 차이로 인한 불편과 고통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 즉 인내력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다름에 대한 인내’로 명명하였다. 예비문항 중 다름을 견디고자 하는 노력이나 관계 유지에 대한 의지와 관련된 문항(예: ‘커플 간에는 서로 다르기 마련이므로, 이러한 부분은 덮어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관계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은 탈락하였다. 이에 ‘다름에 대한 인내’를 ‘서로의 차이와 이로 인한 불편을 견디는 능력’으로 최종 정의하였다. 모두 부정 문항으로, 역채점 점수

표 2. 최종 척도의 하위요인에 대한 정의와 문항 정보 및 내적 일관성 계수

| 하위 요인 | 정의 | 문항 수 | 최종 문항 번호 | 내적 일관성 |
|-------------|-----------------------------------------------------|------|------------------------|--------|
| 다름에 대한 인내 | 서로의 차이와 이로 인한 불편을 견디는 능력 | 5 | 5*, 12*, 14*, 19*, 22* | .88 |
| 다름에 대한 역지사지 | 상대의 관점에서 서로의 다름을 바라보고, 상대의 노력과 고통을 이해하는 태도 | 4 | 1, 10, 11, 17 | .81 |
| 다름에 대한 존중 |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를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는 태도 | 5 | 2*, 7*, 15*, 18*, 21* | .87 |
| 다름을 통한 성장 | 다름의 긍정적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고, 다름을 통해 더욱 발전된 관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태도 | 5 | 4, 6, 9, 13, 20 | .85 |
| 다름에 대한 거리두기 | 다름으로 인해 파생된 부정적 생각 및 정서로부터 거리를 두고 비판단적으로 바라보는 태도 | 3 | 3, 8, 16 | .63 |

*역채점 문항

표 3.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서 산출된 커플관계 다름 수용 척도 요인 간 상관

| | 요인 1 | 요인 2 | 요인 3 | 요인 4 | 요인 5 |
|------------------|--------|--------|--------|--------|------|
| 요인 1 다름에 대한 인내 | 1 | | | | |
| 요인 2 다름에 대한 역지사지 | .25*** | 1 | | | |
| 요인 3 다름에 대한 존중 | .50*** | .23*** | 1 | | |
| 요인 4 다름을 통한 성장 | .47*** | .42*** | .45*** | 1 | |
| 요인 5 다름에 대한 거리두기 | .31*** | .35*** | .34*** | .41*** | 1 |

*** $p < .001$

가 높을수록 인내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요인 2는 총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파트너에 대한 정서적 공감보다는 주로 서로의 다름을 파트너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조망수용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다름에 대한 역지사지’로 명명하였고, ‘상대의 관점에서 서로의 다름을 바라보고, 상대의 노력과 고통을 이해하는 태도’로 최종 정의하였다. 요인 3은 5개의 역채점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주로 파트너를 자신의 기준에 맞춰 변화시키고 싶은 기대와 욕구를 포함하고 있다. 다름을 존중하는 태도의 부재와 관련된 것으로, 요인3을 ‘다름에 대한 존중’으로 명명하였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를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는 태도’로 최종 정의하였다. 요인 4는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주로 다름의 긍정적 기능과 다름을 통한 관계의 발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다름을 통한 성장’으로 명명하고, ‘다름의 긍정적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고, 다름을 통해 더욱 발전된 관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태도’로 최종 정의하였다. 요인 5는 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서로의 차이에서 기인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으로부터 평정을 유지하고, 비판단적 태도를 취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다름에 대한 거리두기’로 명명하고, ‘다름으로 인해 파생된 부정적 생각 및 정서로부터 거리를 두고, 비판단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로 최종 정의하였다. 요인1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88, 요인 2는 .81로 나타났다. 요인 3은 .87, 요인 4는 .85, 요인 5는 .63이었다(표 2). 요인 간 상관계수는 .23~.50으로 나타났다(표 3).

지각된 다름 정도 및 다름으로 인한 고통 정도

지각된 다름의 정도 및 다름으로 인한 고통 질문지에 속하는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 중 346명(95.3%)이 미혼이었던 관계로, 총점은 기혼자 응답문항을 제외하고, 전반부 18개 문항을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지각된 다름 정도의 남자 평균은 37.27($SD=11.25$), 여자 평균은 28.23($SD=11.58$), 다름으로 인한 고통 정도의 남자 평균은 46.64($SD=10.85$), 여자 평균은 47.75($SD=10.23$)으로 나타났으며, 성차는 유의하지 않았다, $t(361)=-.79, p=.430, t(361)=-.99, p=.32$. 미혼자와 기혼자가 공통으로 응답하는 전반부 18개 문항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지각된 다름의 정도가 .86, 다름으로 인한 고통 정도가 .80으로 나타났다. 기혼자 응답 문항 4개의 내

표 4. 지각된 다름 정도 및 다름으로 인한 고통 정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 문항 내용 | 지각된 다름 정도 | | 다름으로 인한 고통 |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1 경제관념 및 소비 습관 | 1.97 | 1.08 | 2.75 | 1.16 |
| 2 취미활동 및 여가 시간을 보내는 방법 | 2.16 | 1.13 | 2.99 | 1.13 |
| 3 종교문제 | 1.48 | 0.97 | 2.12 | 1.41 |
| 4 성관계 | 2.26 | 1.18 | 2.62 | 1.11 |
| 5 애정 표현 방식 | 2.38 | 1.33 | 2.84 | 1.25 |
| 6 친구관계 및 사교활동(예: 각종 모임) | 2.41 | 1.25 | 3.01 | 1.22 |
| 7 도덕관(옳고 그른 행동에 대한 기준) | 1.86 | 1.05 | 2.23 | 1.11 |
| 8 가치관(인생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 2.26 | 1.19 | 2.75 | 1.16 |
| 9 함께 보내길 원하는 시간의 정도 | 2.69 | 1.37 | 2.81 | 1.29 |
| 10 생활습관(예: 식사습관, 위생관념, 시간개념, 귀가시간) | 2.03 | 1.08 | 2.53 | 1.16 |
| 11 의사소통 방식 | 2.49 | 1.31 | 2.76 | 1.25 |
| 12 진로 선택(예: 직장, 학업) | 2.06 | 1.17 | 3.00 | 1.30 |
| 13 교육 수준 및 지적능력 | 1.72 | 1.06 | 2.10 | 1.23 |
| 14 신체적 매력(예: 잘생김의 정도, 외모 관리 정도) | 1.82 | 0.99 | 2.43 | 1.09 |
| 15 집안의 가족분위기 | 2.14 | 1.17 | 2.89 | 1.29 |
| 16 집안의 사회경제적 배경 | 1.96 | 1.09 | 2.75 | 1.17 |
| 17 중독적 행동(음주, 흡연, 인터넷, 게임 등) 허용 범위 | 1.79 | 1.09 | 2.18 | 1.22 |
| 18 신뢰 문제(예: 이성 친구의 허용 범위, 외도의 기준, 사생활 공유 범위 등) | 2.37 | 1.30 | 2.56 | 1.25 |
| 19 본인의 부모 및 형제를 대하는 방식 (n=29) | 2.03 | 1.12 | 2.66 | 1.29 |
| 20 상대방의 부모 및 형제를 대하는 방식 (n=29) | 2.03 | 1.12 | 2.45 | 1.30 |
| 21 가사노동 및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n=29) | 1.83 | 1.14 | 2.07 | 1.07 |
| 22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에 대한 견해 (n=27) | 2.15 | 1.35 | 2.31 | 1.14 |
| 23 기타 (n=30) | 3.47 | 1.46 | 3.81 | 1.25 |

적 일관성 계수는 지각된 다름의 정도가 .87, 다름으로 인한 고통 정도는 .73으로 나타났다. 커플관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을 직

접 서술하게 되어있는 기타 문항에 응답한 30 명의 응답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연락 빈도 및 연락 방식에 관한 차이를 응답한 참

여자가 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갈등 해결 능력 및 갈등 해결 태도와 관련된 차이를 응답한 3명, 정치적 견해에 관한 차이를 응답한 2명, 데이트 때 하고 싶은 것의 차이를 응답한 2명, 애정 표현 및 스킨십 정도의 차이를 기술한 2명이 있었다. 생활지역, 식성, 부모에 대한 의존도, 교통수단에 대한 견해와 관련된 응답도 각각 1명씩 있었다.

한편, 커플관계 다름 수용 척도는 지각된 다름 정도와 $-.51$, 다름으로 인한 고통 정도와 $-.36$ 의 상관을 보였다. 지각된 다름 정도와 다름으로 인한 고통은 $.70$ 의 높은 상관을 보였다.

연구 2. 커플관계 다름 수용 척도 타당화

본 연구의 목적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커플관계 다름 수용 척도의 요인구조를 재확인하고, 이론적으로 관련된 척도들을 실시하여 수렴 및 변별 타당도와 준거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이다. 또한 2주 간격의 재실시를 통하여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커플관계 다름 수용 태도가 커플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추가적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증분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양한 차원의 수용 척도들, 그리고 이론적 관련성이 시사되는 척도들을 선택하였다. ACT의 심리적 수용 개념을 측정하는 수용 및 행동 질문지 2판 척도와 REBT(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에 기반한 무조건적 자기수용 척도, 그리고 자기분화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느끼면서도 이성적으로 사고하여 판단을 내릴

수 있고, 또한 개인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일체감을 경험할 수 있다(Jeon, 2017). 커플관계 다름 수용 척도는 상기 척도들과 정적인 상관을 보이리라 예상된다. 한편 탈중심화 척도는 현실 자체와 그에 대한 해석에 해당하는 자신의 생각 및 감정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고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Jang, 2013). 인지치료에서는 이러한 능력을 거리두기(distancing)로 언급한 바 있으며(Beck, 2005), Jacobson과 Christensen(1996)은 IBCT의 한결같이 초연하기 개념이 이러한 거리두기 개념과 유사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탈중심화 척도는 커플관계 다름 수용 척도 하위요인 중 다름에 대한 거리두기 요인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리라 기대된다. 대인관계 조화 척도는 커플관계 다름 수용 척도가 전반적인 대인관계 적응성과도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선정되었다. 커플용 대인관계 반응 척도는 파트너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공감 수준을 측정하며, 하위요인 중 다름에 대한 역지사지 요인과 가장 큰 상관을 보이리라 기대된다. 한편 커플관계에서 서로의 다름을 수용하는 태도가 사회적으로 적절하고 권장되는 가치로 간주 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와 어느 정도 정적 상관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준거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척도로 커플관계 만족도 척도와 커플관계 스트레스 척도, 지각된 다름의 정도 및 다름으로 인한 고통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커플관계에서 다름 수용 태도가 높을수록 커플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높고, 스트레스는 낮으리라 예상된다. 또한 수용도가 높을수록 주관적으로 다르다고 느끼는 정도와 달라서 겪는 고통 수준이 낮으리라 예상된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는 총 441명으로, 한국리서치를 통해 모집된 일반인 305명과 서울 소재 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학부생 136명이었다. 연구1과 동일하게, 만 18세 이상 성인으로 현재 커플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과거 적어도 1개월 이상 커플관계를 유지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참여자들은 연구 모집 문건을 본 뒤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였고,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리서치 업체에서 제공하는 사례비 및 연구 참여 점수를 받았다.

학부생 참여자 중 불성실 응답 12명을 제외한 429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전체 참여자 중 남자는 212명(49.4%), 여자는 217명(50.6%)이었으며, 연령은 만 18~60세였다(전체 평균 연령: 34.3세, $SD=12.88$). 참여자들 중 검사-재검사 신뢰도 검증용을 위해 심리학 과목을 수강하는 학부생 136명을 대상으로 2주 간격으로 커플관계 다름 수용 척도를 재 실시하였고, 자발적으로 재검사까지 완료한 참여자는 45명이었다.

측정도구

커플관계 다름 수용 척도(Acceptance for Differences in Couple Relationships Scale: ADCRS)

연구 1에서 개발된 척도로, 2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7점 리커트 척도상에서 자신과 일치하는 정도를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91, 다

름에 대한 인내 .89, 다름에 대한 역지사지 .89, 다름에 대한 존중 .84, 다름을 통한 성장 .87, 다름에 대한 거리두기 .63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다름의 정도 및 다름으로 인한 고통 질문지(Perceived Differences and Distress due to Differences Scale: PDDDS)

연구 1에서 사용된 형식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연구 1에서 서술형 기타 항목에 자주 언급된 내용(연락 빈도, 애정 표현 정도, 스킨십 정도, 데이트 시 함께 하는 활동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예시를 추가하는 형태로 기존 문항을 수정하였고, 1개 영역(정치적 견해)을 추가하여 총 24개 문항이 되었다. 24개 영역에서 지각된 다름의 정도와 다름으로 인한 고통 정도를 각각 5점 리커트 척도상에서 평정한다. 본 연구에서 미혼자와 기혼자 공통 응답 문항인 전반부 19개 문항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지각된 다름의 정도가 .88, 다름으로 인한 고통 정도가 .93으로 나타났다. 후반부 기혼자 응답 4문항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지각된 다름의 정도가 .84, 다름으로 인한 고통 정도가 .86으로 나타났다. 미혼자와 기혼자의 응답 문항 개수가 달랐기 때문에, 응답 점수를 합산한 후 Z점수로 변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수용과 행동 질문지 제2판(Acceptance and Action Questionnaire-II: AAQ-II)

ACT의 기본 개념인 심리적 수용과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Bond 등(2011)이 개발한 10개 문항의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Heo 등(2009)이 번안 타당화한 한국판 검사를 사용하였으며, 7점 리커트 척도상에서 평정된다. 심리적 유연성이라는 전반적인 특성을 측

정하는 1요인 질문지로, Heo 등(2009)의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계수는 .8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81로 나타났다.

개정판 무조건적 자기수용 척도(Revised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Questionnaire: USAQ-R).

Chamberlain과 Haaga(2001)가 REBT(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에 근거하여 개발한 것으로 수행이나 다른 사람의 평가와 관계없이 얼마나 자신을 온전히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지를 알아보는 자기보고식 척도다. 본 연구에서는 Chu와 Lee(2014)에 의해 번안, 타당화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5 문항으로 7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된다. 이들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7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9로 나타났다.

한국형 자기분화 척도(Korean Self-DifferentiationInventory: KSDI)

Jung과 Cho(2007)가 개발하고 타당화 과정을 거친 자기보고식 척도로, 심리내적 차원과 대인 관계적 차원에서의 자기분화 수준을 측정한다. 총 38문항, 0점에서 5점에 이르는 리커트식 척도를 사용한다.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정서적 반응(9문항), 자기입장(8문항), 타인과의 융합(7문항), 정서적 단절(5문항), 정서적 융합(9문항)이 이에 해당한다. Jung과 Cho(2007)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89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7로 나타났다.

탈중심화 척도(Decentering Scales: DS).

Fresco 등(2007)에 의해 개발된 탈중심화 척도(Experiences Questionnaire, EQ)를 Kim 등(2010)

이 번안하고 타당화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1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상에서 평정되며, 각 문항의 내용은 탈중심화의 세 가지 측면인 사고와의 탈동일시, 반응의 탈자동화, 자기수용을 측정한다. Kim 등(2010)의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계수는 .7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8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조화척도(Interpersonal Harmony Scale: IHS)

Kim과 Park(2008)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인관계 상황에서 개인 내 인지, 정서, 행동 측면에서 서로 균형을 이루어,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제작한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대인인지, 대인정서, 대인행동의 3요인,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Won(2018)의 연구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원칙도와 같이 3요인으로 확인되었다. Kim과 Park(2008)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85였고, 본 연구에서는 .93으로 나타났다.

커플용 대인관계반응 척도, 커플 공감 척도(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for Couple: IRIC)

커플관계에서 파트너에 대한 공감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Pélouquin와 Lafontaine(2010)가 일반적인 대인관계에서 공감을 측정하는 Davis(1980)의 대인관계반응 척도(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를 커플용으로 제작하였으며, 이를 Lee와 Lee(2017)가 번안하고 타당화하였다. Lee와 Lee(2017)는 파트너에 대한 자신의 공감 수준을 측정하는 것과 더불어, 자신이 지각한 파트너의 공감 수준까지 측정하는 이자간 공감 척도로 구성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는 파트너에 대한 자신의 공감 수준을 측정하는 14문항만 사용하였다. 조망수용(7문항) 및 공감적 관심(7문항)의 2요인으로 구성되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제시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혼자와 미혼자를 모두 포함하기에, 원척도의 아내(남편) 또는 여자친구(남자친구)라는 용어 대신 파트너로 수정하였다. 또한 부부 사이라는 용어 대신 커플 사이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Lee와 Lee(2017) 및 본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계수는 .82로 나타났다.

한국판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단축형

(Korean Version of Social Desirability Scale-9: K-SDS-9)

Stöber(2001)가 개발한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The Social Desirability Scale-17)를 Bae 등(2015)이 한국판 단축형으로 구성한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총 9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되며, 2요인으로 구성된다. 요인 1(5문항)은 긍정형 사회적 바람직성 요인으로, 바람직하지만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는 행동을 측정한다. 요인 2(4문항)는 부정형 사회적 바람직성 요인으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빈번하게 일어나는 행동을 측정한다. 연구자들이 제시한 내적 일관성 계수는 요인 별로 각각 .72, .47이었고, 두 요인을 구분해서 점수화하기보다 단일 점수를 이용하도록 권장되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64로 나타났다.

커플관계 스트레스 척도

Jeon 등(2000)에 의해 개발된 대학생용 생활 스트레스 척도 중 이성과의 관계 문제를 반영하는 6문항을 사용하였다. 지난 1년 동안 이성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사건의 빈도를 4점

리커트식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혼과 기혼자를 모두 포함하기에, 원척도의 이성친구라는 용어 대신, 파트너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또한 스트레스 사건의 빈도뿐 아니라, 각 사건으로 인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추가 평정하였다. 원척도에서 제시된 내적 일관성 계수는 .88이었다.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 빈도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91, 스트레스 정도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90이었다.

커플관계 만족도 척도

커플관계에서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Lee와 Hahn(2005)이 개발한 이성관계 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9문항으로 구성되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제시된다. 본 연구에서는 미혼자 및 기혼자를 모두 포함하기에, 원척도의 이성친구라는 용어를 파트너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현재 커플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현재 파트너를, 현재 커플이 아니라면 과거 1개월 이상 커플이었던 파트너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파트너를 떠올리며 응답하도록 하였다. Kim(2018)의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계수는 .92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93으로 나타났다.

분석

AMOS 22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IBM SPSS 25 statistics를 통해 척도들 간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또한 커플관계 다름 수용 태도가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커플관계

관련 정보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전체 표본의 커플관계 다름 수용 척도 평균은 104.22, 표준편차는 17.89였다. 다름에 대한 인내 요인의 평균은 23.32($SD=6.37$), 다름에 대한 역지사지 요인의 평균은 21.30($SD=4.29$), 다름에 대한

표 5.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집단 별 커플관계 다름 수용 척도 평균 및 표준편차($N=429$)

| 특성 | 구분 | 인원수(명) | 비율(%) | 커플관계 다름 수용 | |
|-------------|--------------|--------|-------|------------|-------|
| | | | | 평균 | 표준편차 |
| 성별 | 남 | 212 | 49.4 | 106.11 | 18.28 |
| | 여 | 217 | 50.6 | 102.37 | 17.33 |
| 연령 | 20대 이하 | 198 | 46.2 | 110.02 | 17.38 |
| | 30대 | 76 | 17.7 | 100.09 | 17.94 |
| | 40대 | 78 | 18.2 | 98.76 | 17.46 |
| | 50대 이상 | 77 | 17.9 | 98.92 | 15.11 |
| 결혼 | 미혼 | 219 | 51 | 108.78 | 17.92 |
| | 기혼 | 200 | 46.6 | 99.79 | 16.71 |
| | 기타(이혼, 별거 등) | 10 | 2.3 | 94.64 | 15.00 |
| 현재 커플 여부 | 현재 커플 | 337 | 78.6 | 104.62 | 18.11 |
| | 현재 커플 아님 | 92 | 21.4 | 102.76 | 17.06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44 | 10.3 | 99.84 | 17.09 |
| | 대학교 재학 | 149 | 34.7 | 111.25 | 17.35 |
| | 대학교 졸업 | 203 | 47.3 | 100.33 | 16.69 |
| | 대학원 이상 | 33 | 7.7 | 102.30 | 19.48 |
| 자녀 | 없음 | 243 | 56.6 | 107.97 | 17.97 |
| | 있음 | 186 | 43.4 | 99.32 | 16.58 |
| 종교 | 없음 | 261 | 60.8 | 105.59 | 18.13 |
| | 있음 | 168 | 39.2 | 102.10 | 17.33 |
| 현재 커플 유지 기간 | 1년 미만 | 70 | 16.3 | 113.53 | 19.46 |
| | 1년~3년 미만 | 59 | 13.8 | 105.58 | 15.37 |
| | 3년~5년 미만 | 28 | 6.5 | 110.11 | 15.35 |
| | 5년~10년 미만 | 47 | 11.0 | 103.02 | 16.33 |
| | 10년~20년 미만 | 58 | 13.5 | 96.93 | 18.47 |
| | 20년 이상 | 75 | 17.5 | 100.45 | 16.84 |

존중 요인의 평균은 20.83($SD=5.68$), 다름을 통한 성장 요인의 평균은 24.08($SD=5.16$), 다름에 대한 거리두기 요인의 평균은 14.70 ($SD=2.80$) 이었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커플관계 다름 수용 척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커플관계 다름 수용 태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낮아졌다(표 7), $t(429)=-.29, p<.001$. 연령 효과를 통제하고도 성별, $F(1, 426)=6.53, p=.011$, 부분 $\eta^2 = .015$, 현재 커플관계 유지 여부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14.72(1, 216), p<.001$, 부분 $\eta^2=.064$. 그러나 연령 통제 시, 결혼상태, 학력, 종교, 자녀유무, 가구소득, 나이 차, 커플 교제횟수, 커플관계 유지 기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결혼 상태에서 기타(이혼, 별거 등)에 해당하는 10명은 점수 분포가 기혼 집단과 유사하였고, 통계적 차이도 유의하지 않아 이후 분석에서 기혼 집단에 포함했다.

연령 통제 시, 미혼 집단은 기혼 집단에 비해 다름으로 인한 고통 정도는 유의하게 낮았고, $F(1, 426)=52.20, p<.001$, 부분 $\eta^2=.109$, 커플관계 만족도는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1, 426)=4.08, p=.044$, 부분 $\eta^2=.109$.

확인적 요인분석

5요인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경쟁모형으로는, 커플관계 다름 수용 태도를 1개의 요인으로 가정한 1요인 모형, 그리고 수용과정 요인과 수용결과 요인으로 이루어진 2요인 모형, 수용과정 요인에서 다름에 대한 인내 요인을 별개로 분리한 3요인 모형, 다섯 개의 하위요인을 집단요인으로 하고, 모든 문항이 다름에 대한 수용이라는 일반요인을 공유한다고 가정하는 쌍요인(Bifactor) 모형을 경쟁 모델로 선정하였다. 위의 다섯 개 모형을 비교하여 요인 구조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표 6). CMIN/DF는 3보다 적어야 전반적으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데(Kline, 2011), 5요인 모형이 2.50으로 가장 적합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GFI, TLI, CFI는 .90~.95이상으로 1에 가까울수록, RMSEA는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close fit), .08 이하이면 괜찮은 적합도(reasonable fit)로 작을수록 양호하다고 볼 수 있는데(Brown & Cudeck, 1993) 이 지표들에서 모두 5 요인모형이 가장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쌍요인 모형 또한 GFI와 TLI가 .90에 근접하고 REMSA가 .73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6. 커플관계 다름 수용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한 모형 간 적합도 비교

| 모형 | chi-square | df | CMIN/df | GFI | TLI | CFI | RMESA |
|------------------|------------|-----|---------|-------|-------|-------|-------|
| 1요인 모형 | 2402.516 | 209 | 11.495 | 0.504 | 0.522 | 0.567 | 0.157 |
| 2요인 모형 | 2275.815 | 208 | 10.942 | 0.510 | 0.547 | 0.592 | 0.152 |
| 3요인 모형 | 1446.88 | 206 | 7.024 | 0.692 | 0.725 | 0.755 | 0.119 |
| 5요인 모형 | 497.994 | 199 | 2.502 | 0.906 | 0.932 | 0.941 | 0.059 |
| 쌍요인(Bifactor) 모형 | 611.508 | 231 | 3.270 | 0.890 | 0.897 | 0.916 | 0.07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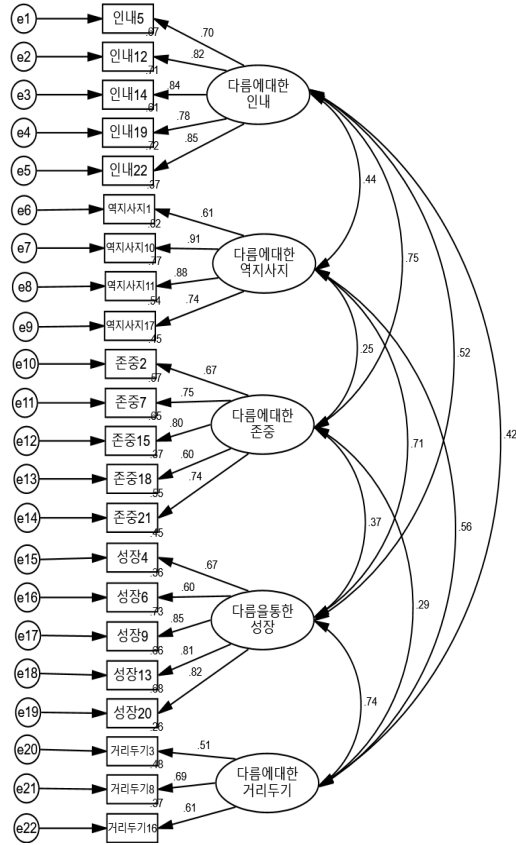


그림 1. 5요인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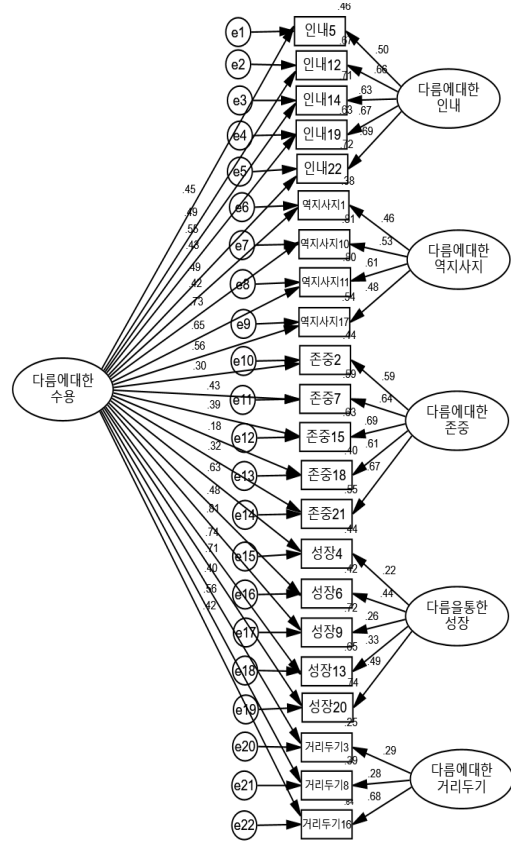


그림 2. 쌍요인(Bifactor) 모형

커플관계 다름 수용 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대학생 136명 중 45명의 응답으로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측정된 결과, 전체 척도의 신뢰도는 $r(45)=.82$ 로 나타났다. 다름에 대한 인내 요인의 신뢰도는 $r(45)=.79$, 다름에 대한 존중 요인의 신뢰도는 $r(45)=.76$ 이었다. 다름에 대한 역지사지 요인의 신뢰도는 $r(45)=.52$, 다름을 통한 성장 요인의 신뢰도는 $r(45)=.56$, 다름에 대한 거리두기 요인의 신뢰도는 $r(45)=.57$ 로 인내 및 존중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커플관계 다름 수용 척도 및 관련 척도들의 상관

커플관계 다름 수용 척도 및 관련 척도들의 상관을 분석하여 표 7에 제시하였다. 커플관계 다름 수용 척도는 예상대로 심리적 유연성 척도, 그리고 무조건적 자기수용 척도, 자기분화 척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각각 $r(429)=.52, p<.001, r(429)=.31, p<.001, r(429)=.38, p<.001$. 특히 하위요인 중 다름에 대한 인내 요인과 다름에 대한 존중 요인이 해당 척도들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각각 $r(429)=.31\sim.53, p<.001, r(429)=.34\sim.41, p<.001$. 또한 대인관계조화 척도, 그리고 커플공

표 7. 커플관계 다름 수용 척도와 연령 및 관련 변인 간 상관(N=429)

| | 연령 | 1 | 1-1 | 1-2 | 1-3 | 1-4 | 1-5 |
|-----------------------|---------|---------|---------|---------|---------|---------|---------|
| 1. 커플관계 다름 수용 (ADCRS) | -.29*** | 1 | | | | | |
| 1-1. 다름에 대한 인내 | -.18*** | .84*** | 1 | | | | |
| 1-2. 다름에 대한 역지사지 | -.32*** | .66*** | .37*** | 1 | | | |
| 1-3. 다름에 대한 존중 | -.23*** | .72*** | .67*** | .17*** | 1 | | |
| 1-4. 다름을 통한 성장 | -.21*** | .78*** | .46*** | .59*** | .30*** | 1 | |
| 1-5. 다름에 대한 거리두기 | -.14** | .59*** | .31*** | .42*** | .21*** | .55*** | 1. |
| 지각된 다름 정도 (PDDDS) | .44*** | -.54*** | -.46*** | -.44*** | -.36*** | -.41*** | -.25*** |
| 다름으로 인한 고통 (PDDDS) | .40*** | -.61*** | -.57*** | -.46*** | -.44*** | -.41*** | -.26*** |
| 심리적 유연성 (AAQ-II) | -.14** | .52*** | .53*** | .32*** | .42*** | .28*** | .24*** |
| 무조건적 자기수용 (USAQ-R) | .01 | .31*** | .31*** | .05 | .34*** | .21*** | .16** |
| 자기분화 (KSDI) | .00 | .38*** | .44*** | .09 | .41*** | .18*** | .14** |
| 탈중심화 (DS) | -.18*** | .32*** | .20*** | .25*** | .13** | .32*** | .35*** |
| 대인관계조화 (IHS) | -.25*** | .46*** | .28*** | .51*** | .14** | .39*** | .47*** |
| 커플공감 (IRIC) | -.29*** | .57*** | .42*** | .53*** | .30*** | .43*** | .47*** |
| 사회적 바람직성 (K-SDS-I) | -.10* | .27*** | .19*** | .25*** | .14** | .17** | .35*** |
| 커플관계 스트레스 빈도 | -.34*** | -.25*** | -.33*** | -.10* | -.19*** | -.14** | -.04 |
| 커플관계 스트레스 정도 | -.38*** | -.17** | -.29*** | .02 | -.16** | -.09 | .04 |
| 커플관계 만족도 | -.25*** | .71*** | .64*** | .60*** | .41*** | .52*** | .33*** |

ADCRS=커플관계 다름 수용 척도, PDDDS=지각된 다름의 정도 및 다름으로 인한 고통 질문지, AAQ-II=수용과 행동 질문지 제2판, USAQ-R=개정판 무조건적 자기수용 척도, KSDI=한국형 자기분화 척도, DS=탈중심화 척도, IHS=대인관계조화 척도,IRIC=커플용 대인관계반응 척도, K-SDS-9=한국판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단축형

* $p < .05$. ** $p < .01$. *** $p < .001$

감 척도와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각각 $r(429)=.46$, $p < .001$, $r(429)=.57$, $p < .001$, 하위요인 중 다름에 대한 역지사지 요인이 해당 척도들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각각 $r(429)=.51$, $p < .001$, $r(429)=.53$, $p < .001$. 탈중심화 척도와도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r(429)=.32$, $p < .001$, 하위요인 중 다름에 대한 거리두

기 요인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r(429)=.35$, $p < .001$. 사회적 바람직성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상관 계수는 .27로 크지 않았다. 또한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한 전후 상관관계수 분석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이후 분석에서 사회적 바람직성 요인을 혼합 변인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커플관계 만족도와는 .71의 높은 상관을 보였고, 지각된 다름 정도, 다름으로 인한 고통 정도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각각 $r(429)=-.54, p<.001, r(429)=-.61, p<.001$. 지난 1년 간 경험한 커플관계 관련 스트레스 빈도 및 스트레스 정도와도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상관 계수가 크지 않았다, 각각 $r(429)=-.25, p<.001, r(429)=-.17, p=.01$.

커플관계 다름 수용 태도가 커플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커플관계 다름 수용 태도가 커플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표 8, 표 9). 커플관계 만족도와 다름으로 인한 고통 정도에서 미혼과 기혼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으므로, 두 집단을

표 8. 커플관계 다름 수용 태도가 미혼 집단의 커플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 B | β | t | R ² | ΔR^2 |
|-------------------|-------|---------|----------|----------------|--------------|
| 단계1 | | | | .211 | |
| 연령 | -0.23 | -.22 | -3.66*** | | |
| 성별 | -1.84 | -.13 | -2.15* | | |
| 현재 교제 여부 | -5.70 | -.40 | -6.60*** | | |
| 단계2 | | | | .598 | .387 |
| 연령 | 0.01 | .01 | 0.17 | | |
| 성별 | 0.21 | .02 | 0.33 | | |
| 현재교제 여부 | -3.16 | -.22 | -4.76*** | | |
| 심리적 유연성(AAQ-II) | 0.07 | .09 | 1.74 | | |
| 커플공감(IRIC) | 0.48 | .48 | 9.53*** | | |
| 다름으로 인한 고통(PDDDS) | -2.60 | -.28 | -5.12*** | | |
| 단계3 | | | | .625 | .027 |
| 연령 | 0.02 | .02 | 0.36 | | |
| 성별 | 0.34 | .02 | 0.56 | | |
| 현재교제 여부 | -2.92 | -.20 | -4.52*** | | |
| 심리적 유연성(AAQ-II) | 0.03 | .04 | 0.88 | | |
| 커플공감(IRIC) | 0.40 | .40 | 7.56*** | | |
| 다름으로 인한 고통(PDDDS) | -1.87 | -.20 | -3.56*** | | |
| 커플관계 다름수용(ADCRS) | 0.09 | .24 | 3.93*** | | |

AAQ-II=수용과 행동 질문지 제2판, IRIC=커플용 대인관계반응 척도, PDDDS=지각된 다름의 정도 및 다름으로 인한 고통 질문지, ADCRS=커플관계 다름 수용 척도,

* $p<.05$. *** $p<.001$.

표 9. 커플관계 다름 수용 태도가 기혼 집단의 커플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 B | β | t | R ² | ΔR^2 |
|-------------------|-------|---------|----------|----------------|--------------|
| 단계1 | | | | .029 | |
| 연령 | -0.04 | -.05 | -0.57 | | |
| 성별 | -2.47 | -.16 | -2.27* | | |
| 커플관계 유지기간 | 0.48 | .09 | 1.05 | | |
| 단계2 | | | | .496 | .467 |
| 연령 | -0.04 | -.05 | -0.81 | | |
| 성별 | -2.24 | -.14 | -2.83** | | |
| 커플관계 유지기간 | -0.01 | .00 | -0.03 | | |
| 심리적 유연성(AAQ-II) | 0.19 | .19 | 3.18** | | |
| 커플공감(IRIC) | 0.42 | .35 | 6.37** | | |
| 다름으로 인한 고통(PDDDS) | -2.78 | -.35 | -5.84*** | | |
| 단계3 | | | | .611 | .116 |
| 연령 | 0.01 | .02 | 0.30 | | |
| 성별 | -1.95 | -.12 | -2.79** | | |
| 커플관계 유지기간 | 0.13 | .02 | 0.43 | | |
| 심리적 유연성(AAQ-II) | 0.01 | .02 | 0.26 | | |
| 커플공감(IRIC) | 0.24 | .20 | 3.91*** | | |
| 다름으로 인한 고통(PDDDS) | -1.48 | -.19 | -3.26** | | |
| 커플관계 다름수용(ADCRS) | 0.24 | .51 | 7.67*** | | |

AAQ-II=수용과 행동 질문지 제2판, IRIC=커플용 대인관계반응 척도, PDDDS=지각된 다름의 정도 및 다름으로 인한 고통 질문지, ADCRS=커플관계 다름 수용 척도,

* $p < .05$. ** $p < .001$. *** $p < .001$.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커플관계 만족도와 .5이상의 상관을 보인 심리적 유연성, 커플공감, 다름으로 인한 고통 정도에 더해, 커플관계 다름 수용 태도가 관계 만족도에 추가적인 설명력이 있는지 보았다. 또한 커플관계 다름 수용 태도와 그 외 변인들이 커플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미혼과 기혼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미혼 집단의 경우, 단계 1에서 연령과 성별, 현재 커플 교체 여부를 통제 변인으로 투입하였고, 세 변인은 커플관계 만족도 변량을 21.1% 설명하였다. 단계 2에서 심리적 유연성과 커플공감 능력, 다름으로 인한 고통 정도를 투입하였고, 단계 1에 비해 38.7%의

추가적인 설명량을 보였다. 커플공감 능력은 커플관계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t(212)=9.53, p<.001$, 다름으로 인한 고통은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t(212)=-5.12, p<.001$, 반면, 심리적 유연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212)=1.74, p=.083$. 단계 3에서 커플관계 다름 수용 태도를 추가적으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커플관계 다름 수용 태도는 2.7%의 추가적 설명량을 보였다. 커플공감 능력, $t(211)=7.56, p<.001$, 커플관계 다름 수용 태도가 커플관계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t(211)=3.93, p<.001$. 다름으로 인한 고통은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t(211)=-3.93, p<.001$. 미혼 집단의 커플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커플공감 능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 집단의 경우, 단계 1에서 통제 변인으로 연령과 성별, 커플관계 유지 기간을 투입하였고, 세 변인은 커플관계 만족도의 변량을 2.9%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 2에서 심리적 유연성과 커플공감 능력, 다름으로 인한 고통 정도를 추가로 투입하였고, 단계 1에 비해 46.7%의 추가적인 설명량을 보였다. 심리적 유연성, $t(203)=3.18, p=.002$ 커플공감 능력은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t(203)=6.37, p<.001$, 다름으로 인한 고통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203)=-.584, p<.001$. 단계 3에서 커플관계 다름 수용 태도는 11.6%의 추가적인 설명량을 보였다. 심리적 유연성의 효과는 더이상 유의하지 않았으며, $t(202)=0.26, p=.793$, 관련 변인들 중 커플관계 다름 수용 태도가 커플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커플관계에서 파트너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은 건강하고 장기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덕목이다. 커플치료 분야에서 수용의 요소가 활발히 적용되어온 반면(Lee, 2006; Lee, 2011; Peterson et al., 2009; Song, 2006), 커플관계에서 수용의 이론적 개념과 구체적인 작용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BCT(Jacobson & Christensen, 1996) 이론에 기반하여 커플관계에서 서로의 차이를 수용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였다. 연구1에서는 문헌고찰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커플관계 다름 수용 척도 예비문항을 제작하였고, 주로 대학생 참여자를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커플관계 다름 수용 척도가 이론적 구성개념과 일치하게 5요인으로 구성됨을 밝혔다. 먼저 ‘다름에 대한 인내’는 서로의 차이와 이로 인한 불편을 견디는 능력을 의미한다. 해당 문항들은 모두 역문항으로 서로의 차이와 이로 인한 불편과 고통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론적 검토 단계에서 가정하였던, 다름으로 인한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지와 관련된 문항은 모두 탈락하고, 견디는 것의 의미가 강조되었다. 이에 다소 소극적인 수용의 의미가 강해졌는데, Jacobson과 Christensen(1996)이 인내심 구축하기 전략을 낮은 차원의 수용 전략으로 보았듯이, 다름에 대한 인내도 낮은 차원의 수용 요소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름에 대한 역지사지’는 서로의 다름을 파트너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상대의 노력과 고통을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를 담고 있다. 이론적

검토 단계에서, IBCT의 ‘공감적 함께하기’ 전략을 바탕으로 ‘다름에 대한 공감’으로 개념화하였으나, 최종 선정된 문항의 내용이 공감의 정서적 측면보다는 주로 조망수용과 관련된 인지적 측면을 반영하고 있어(Davis, 1980), ‘다름에 대한 역지사지’로 명명하였다. ‘다름에 대한 존중’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두 역문항으로 구성되며, 자신의 기대나 욕구에 따라 상대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시도를 담고 있다. ‘다름을 통한 성장’은 서로의 차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다름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름에 대한 거리두기’는 차이로 인해 파생된 부정적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심리적 안정과 비판단적 시각을 유지하고자 하는 태도를 담고 있다.

연구 2에서는 커플관계 다름 수용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일반인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커플관계 다름 수용 척도 및 이론적으로 관련된 척도들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5요인 구조가 가장 적합함을 밝혔다. 또한 다섯 개의 집단 요인과 일반요인을 가정한 쌍요인 모형도 모델적합도가 양호하여, 단일차원으로서 전체점수(총점)를 사용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2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82로 나타나 개발된 척도가 시간의 경과에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커플관계 다름 수용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임을 확인하였다. 다만 다섯 요인 중 다름에 대한 인내와 다름에 대한 존중 요인이 각각 .79, .76의 높은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보인 반면, 다름에 대한 역지사지와 다름에 대한 거리두기, 다름을 통한 성장 요인은 .52에서 .57에 이르는 상대적으로 낮은

안정성을 보였다. 다름에 대한 역지사지와 거리두기는 수용의 실천적 요소에 해당하고, 다름을 통한 성장은 서로의 차이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에, 이는 일상생활 속에서 수용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의 어려움을 반영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해당 요인들의 가변적 속성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치료적 개입을 통해 변화할 여지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추후 해당 요인들에 대한 치료적 개입의 효과와 함께, 커플관계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이나 관계 개선 및 악화 정도에 따른 변화 양상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에서 커플관계 다름 수용 태도는 심리적 유연성, 무조건적 자기수용 같은 수용 관련 변인들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특히 하위요인 중 다름에 대한 인내와 다름에 대한 존중이 더욱 높은 상관을 보여, 해당 요소들이 수용 개념의 보편적 속성을 가장 많이 공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름에 대한 인내와 존중 요인은 또한 자기분화 척도와도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자신과 타인을 분리된 존재로 인식하는 자기분화의 대인관계적 측면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대인관계조화 척도 및 커플공감 척도와도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특히 다름에 대한 역지사지 요인이 .5이상의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는 역지사지 요인이 파트너 입장에 대한 적극적 이해와 연민 같은 관계적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탈중심화 척도와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예상대로 다름에 대한 거리두기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상관계수는 .35로 그리 크지 않았다. 이에 다름에 대한 거

리두기 요인이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자신의 내적 경험을 관찰하는 일반적인 탈중심화의 요소를 지니고 있음과 동시에, 커플관계 맥락에서 서로의 다름에 대한 구체적 반응이라는 특수성 또한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커플관계 다름 수용 척도는 사회적 바람직성과도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나, 상관계수는 .27로 그리 크지 않았다. 또한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된 전후 상관계수 분석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이후 분석에서 사회적 바람직성 요인을 혼합 변인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준거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예상한 대로 커플관계 다름 수용 척도는 커플관계 만족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 지각된 다름의 정도 및 다름으로 인한 고통 정도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증분타당도 검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커플관계 다름 수용 태도는 미혼, 기혼 집단 모두에서 커플관계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효과의 크기는 기혼 집단이 확연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집단의 경우, 커플공감이 커플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컸던 반면, 기혼 집단은 커플관계 다름 수용 태도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컸다. 미혼의 낭만적 연애 관계에서는 상대방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추상적인 지각을 하는 경향이 있고, 실생활을 공유하는 물리적 공간과 시간도 기혼자에 비해 적을 수밖에 없다(Han & Shin, 2007; Neff & Karney, 2005). 따라서 미혼 커플은 서로의 다름을 실감할 기회가 적고, 수용적 태도보다는 정서적으로 따뜻하고 지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관계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기혼 커플의 경우, 파트너 간 정서적 몰입은 줄어드는 대신, 경제적 문제나 양육갈등, 원가족과의 관계, 생활

습관 등 일상에서 서로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날 기회가 많고, 갈등과 반목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유지해야 할 현실적인 이유와 책임이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파트너 간의 다름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가 관계만족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에서 커플관계 다름 수용 태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Jacobson 등(1986,1987)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령은 커플치료의 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나이가 많을수록 커플치료 성공률이 낮으며, 연령 효과는 결혼 지속기간의 효과를 배제하고서도 유의미하였다. 또한 전통적인 성역할을 고수할수록 커플치료 효과가 낮은 경향이 있는데, 이는 가부장적인 결혼관계 내에서는 치료적 개입을 통한 기존의 역할 변화에 저항적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위 내용을 토대로 볼 때, 나이가 많을수록 커플관계에서 더욱 경직된 태도를 지닐 가능성이 있고, 서로의 차이에 대한 수용도가 낮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한편, 연령효과를 이해하기 위하여,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에 대한 세대 효과, 다문화 수용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제도의 확대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도 고려해볼 수 있다. 한국 사회는 개인주의 문화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고, 인구구성의 다양성도 크게 증가하였다(Whang & Kim, 2004).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개인의 사적 영역을 존중하고, 문화상대성 및 정치적, 사회적 관용을 강조하는 공교육도 확대되었다(Chung & Jung, 2012; Park et al., 2011). 따라서 개별성에 대한 존중이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에게 더욱 익숙하고 권장되는 가치일 수 있다.

커플관계 다름 수용 태도는 연령 변인을 통제하고도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남성의 수용 태도가 여성에 비해 다소 높았다.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독립적이고 성취지향적이며, 여성이 남성보다 관계 지향적이고 상호의존적 욕구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Helgeson, 1994). 또한 여성들이 커플관계에서 친밀함을 추구하면서 파트너의 변화를 요구하고, 남성들이 거리감을 유지하며 변화에서 물러나는 패턴을 주로 보인다는 결과도 있다(Christensen & Heavey, 1993; Jacobson & Christensen, 1996). 남성들이 커플관계 내에서 더욱 독립성을 추구하고 감정적인 개입을 덜 하므로, 상대를 변화시키려는 시도와 요구가 적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Jacobson과 Christensen(1996)은 성별과 관련된 요구/철회 패턴이 전통적인 사회구조 내에서 남녀 간의 힘의 불평등을 반영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커플관계 내에서 여성들이 남성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박탈된 자원과 열악한 지위를 되돌리기 위한 시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용과 관련된 성차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커플관계 내의 권력 구조 같은 요소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커플관계 다름 수용 태도와 인구통계학적 변인들과의 관계는 반복 검증 및 종단적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커플관계 다름 수용 척도가 양호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커플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커플관계 다름 수용 척도의 하위요인 중 ‘다름에 대한 거리두기’의 경우, 탐색적 요인 분석에서 공통성이 낮은 경향을 보였고, 다른 네 요인에 비하여 내적 일관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거리두기 개념이 메타 인지라는 추상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기 어려운 이상적인 측면을 포함하기 때문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탈락 문항 중 ‘서로 다른 점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면, 나는 그것이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나의 생각일 뿐임을 알고 있다.’ 같은 문항은 문항선정 과정에서 객관적 사실과 생각을 구분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거리두기 개념이 IBCT의 핵심 구성 요소에 해당하고, 거리두기와 유사한 탈중심화나 마음챙김 같은 요소들이 수용을 강조한 3세대 심리치료가 공유하는 주요한 속성이기에(Mairal, 2015), 전문가 협의 과정을 거쳐, 요인부하량과 내적 일관성이 양호한 세 문항을 남겨두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거리두기 요인의 안정성과 실제적 효과를 검증하고, 거리두기 전략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제한점으로는 미혼의 커플관계 경험이 있는 집단 표본에서 심리학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서울 소재 대학생의 비중이 높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신중해야 할 것이며, 추후 연구에서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일반인 표본을 대상으로 한 교차타당화 과정이 요구된다. 또한 현재 커플 교제 중이 아닌 참여자들의 경우, 커플관계 만족도나 커플관계 스트레스, 지각된 다름 정도 및 다름으로 인한 고통 정도를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회고적으로 보고하였기에 정확도가 부족할 수 있다. 그러나 척도의 개발 단계에서 현재 커플 교제 중인 사람들만 포함하게 될 경우, 서로의 차이를 수용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커플 교제 경험이 있는 다양한 표본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이루어졌다. 후속 연구에서는 실제 커플을 대상으로 척도의 효용성을 검증하고 이자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다름 수용 태도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IBCT에서는 인내심 구축하기 전략이 공감적 함께하기나 한결같이 초연하기 전략과는 이루고자 하는 수용의 수준에서 차이가 난다고 보았는데, 다름에 대한 인내 요인과 다른 요인들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다섯 개의 하위요인들 간의 관계에 대해 가설적 모델을 세우고, 이를 검증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연구1에서 추가 제작한 지각된 다름 정도 및 다름으로 인한 고통 질문지의 경우, 커플관계 다름 수용 척도의 타당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보조적인 도구로 고안되었다. 충분한 타당화 과정이 진행되지 않은 만큼, 결과 해석 및 활용에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IBCT의 핵심 개념들을 정량적인 자기보고식 척도로 구현해냈으며,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입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성숙하고 건강한 커플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수용적 태도의 속성을 규명하고, 커플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척도는 서로의 차이를 건설적으로 다루지 못해 갈등을 겪고 있거나,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해 관계를 지속하지 못하는 특징을 지닌 사람들의 문제를 지각하고, 적절히 지지하도록 돕는 좋은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Bae, B. H., Lee, D. G., Ham, K. A. (2015). Validation of the Korean short-version of social desirability scale (SDS-9) Using the Rasch model.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6(6), 177-197.
- Beck, A. T. (2005). *Cognitive therapy of depression* (Won, H.T., Trans.). Hakjisa. (Original work published in 1979)
- Bond, F. W., Hayes, S. C., Baer, R. A., Carpenter, K. M., Guenole, N., Orcutt, H. K., & Zettle, R. D. (2011). Preliminary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Acceptance and Action Questionnaire - II: A revised measure of psychological inflexibility and experiential avoidance. *Behavior Therapy*, 42(4), 676-688. <https://doi.org/10.1016/j.beth.2011.03.007>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3-162). Sage. <https://doi.org/10.1177/0049124192021002005>
- Chamberlain, J. M., & Haaga, D. A. (2001).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and responses to negative feedback. *Journal of Rational-Emotive Cognitive-Behavior Therapy*, 19(3), 177-189. <https://doi.org/10.1023/A:1011141500670>
- Cheung, G. W., & Rensvold, R. B. (2002). Evaluating goodness-of-fit indexes for testing measurement in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2), 233-255. https://doi.org/10.1207/S15328007SEM0902_5
- Choi, K. R. (1995). Family functioning, marital conflicts, conflict coping strategies and

- couple's 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3(6), 99-113.
- Chon, K. K., Kim, K. H., Yi, J. S. (2000). Development of the revised life stress scale for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5(2), 316-335.
- Christensen, A., Atkins, D. C., Yi, J., Baucom, D. H., & George, W. H. (2006). Couple and individual adjustment for 2 years following a randomized clinical trial comparing traditional versus integrative behavioral couple 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4(6), 1180-1191.
<https://doi.org/10.1037/0022-006X.74.6.1180>
- Christensen, A., & Heavey, C. L. (1993). *Gender differences in marital conflict: The demand/withdraw interaction pattern*. Sage Publications, Inc.
- Christensen, A., & Jacobson, N. S. (1997). *Frequency and acceptability of partner behavior inventory*. Unpublished measure, University of California.
- Christensen, A., & Jacobson, N. S. (2014). *Reconcilable differences* (2 ed.). Guilford.
- Chu, M. R., Lee, Y. S (2014). Development and validation study of the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Questionnair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6(1), 27-43.
- Chung, H. J., Cho, E, K. (2007). Korean self-differentiation inventory: Development and validation. *Korean Journal of Family Therapy*, 15(1), 19-46.
- Chung, S. W., Jung, J. C.. (2012). The effects of multicultural educational experience and social distance on the multicultural acceptance of adolescents.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5(1), 51-68.
- Davis, M. H. (1980).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10, MS, 2124, p85.
- Doss, B. D., & Christensen, A. (2006). Acceptance in romantic relationships: the frequency and acceptability of partner behavior inventory. *Psychological Assessment*, 18(3), 289-302.
<https://doi.org/10.1037/1040-3590.18.3.289>
- Fidell, L. S., & Tabachnick, B. G. (2007).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Allyn & Bacon/Pearson Education.
- Fresco, D. M., Moore, M. T., van Dulmen, M. H., Segal, Z. V., Ma, S. H., Teasdale, J. D., & Williams, J. M. (2007). Initial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experiences questionnaire: validation of a self-report measure of decentering. *Behavioral Therapy*, 38(3), 234-246.
<https://doi.org/10.1016/j.beth.2006.08.003>
- Gaunt, R. (2006). Couple similarity and marital satisfaction: Are similar spouses happier? *Journal of personality*, 74(5), 1401-1420.
<https://doi.org/10.1111/j.1467-6494.2006.00414.x>
- Han, S. Y., Shin, H. C. (2007). Multi-group factor analysis and latent means analysis of the basic psychological needs importance scale for couple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9(2), 447-465.
- Hayes, S. C. (1994). *Acceptance and change: Content and context in psychotherapy*. Context Press.

- Hayes, S. C., Strosahl, K., Wilson, K. G., Bissett, R. T., Pistorello, J., Toarmino, D., Polusny, M., Dyksta, T. A., Batten, s. V., Bergan, J., Stewart, S. H., Zvolensky, M. J., Eifert, G. H., Bond, F. W., Fosyth, J. P., Karekla, M., & McCurry, S. M. (2004). Measuring experiential avoidance: A preliminary test of a working model. *Journal of The Psychological Record, 54*(4), 553-578.
<https://doi.org/10.1007/BF03395492>
- Helgeson, V. S. (1994). Relation of agency and communion to well-being: Evidence and potential explanations. *Psychological Bulletin, 116*(3), 412-428.
- Heo, J. H., Choi, M. S., Jin, H. J. (2009). Study on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Korean translated Acceptance-Action Questionnaire-2,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1*(4), 861-878.
- Hong, S. H. (2000). The criteria for selecting appropriate fit indic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their rationale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161-177.
- Hur, J. J., Ko, J. H. (2008). The impacts of difference and misunderstanding of spouse's psychological needs on marital conflict,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2*(4), 27-41.
- Hwang, M. H., Ko, J. H. (2010). Discrepancy, misunderstanding, and conflict in married couples: The role of communication.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5*(4), 779-800.
- Jacobson, N. S., & Christensen, A. (1996). *Acceptance and change in couple therapy: A therapist's guide to transforming relationships*. W.W. Norton & Company.
- Jacobson, N. S., Christensen, A., Prince, S. E., Cordova, J., & Eldridge, K. (2000). Integrative behavioral couple therapy: an acceptance-based, promising new treatment for couple discord.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8*(2), 351-355.
<https://doi.org/10.1037/0022-006X.68.2.351>
- Jacobson, N. S., Follette, W. C., & Pagel, M. (1986). Predicting who will benefit from behavioral marital 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54*(4), 518-522.
<https://doi.org/10.1037/0022-006X.54.4.518>
- Jacobson, N. S., Schmalings, K. B., & Holtzworth Munroe, A. (1987). Component analysis of behavioral marital therapy: 2 year follow up and prediction of relaps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3*(2), 187-195.
<https://doi.org/10.1111/j.1752-0606.1987.tb00696.x>
- Jang, K. S. (2013). *Influences of decentering and perspective-taking on depression: Mediating effects of reflection and rumination*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 Jeon, E. H. (2017). *A effect of the self-differentiation on the resilience of romantic relationship in college student's romantic relationship by applying APIM analysis*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Jeon, J. K., Yang, M. S. (2011). Development of the resilience scale for pre-marital couple relationship.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2*(5), 1509-1525.
- Jeon, S. K. (2010). *The effect of object relationship*

- level and acceptability of partner behavior on limerence in romantic relationships*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 Jeong, K. Y., Shin, H. C. (2007). The major theoretical models and current trends in couples therapy.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9(1), 1-30.
- Kim, B. N., Lim Y. J., Kwon, S. M. (2010). The role of decenter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umin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9(2), 573-596.
- Kim, J. S., Cho, D. Y., Hong, K. E., Cho, S. C., Shin, M. S., Lyoo, I. K., Yoo, S. J. (2002). A new approach to couple therapy: tolerance and acceptance. *Cognitive Behavior Therapy in Korea*, 2(1), 1-13.
- Kim, J. S., Kwon, S. M. (2009). Development of marital beliefs scal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8(2), 459-473.
- Kim, K. E., Yi, G. D., Cho, Y. R., Chai, S. H., Lee, W. K. (2008). The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self-compassion scale.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3(4), 2023-1044.
- Kim, K. H., Park, J. Y., Kwon, J. H. (201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acceptance attitude scale. *The Korea Contents Society*, 16(8), 132-146.
- Kim, O. J., Park, J. H. (2010). The effect of couples' similarities and agreement level on their communication and marriage satisfaction.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5(3), 403- 423.
- Kim, S. H., Kim, S. H. (2006). The development of tolerance scale.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7(2), 215-229.
- Kim, S. H., Park, K. H. (2008). The development of the interpersonal harmony scale for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9(2), 375-389.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 rd ed.* Guilford Press.
- Lee, H. S. (2014). *The impact of university students' openness to diversity on creativity*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 Lee, J. A., Kim, S. H. (2010). The development of the couple harmony scale for married wome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1(4), 1623-1637.
- Lee, J. Y., Lee, Y. H. (2017). Measuring empathy in couples :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dyadic empathic scal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2(4), 739-766.
- Lee, J. Y., Seo, S. K. (2011). Irrational beliefs, conflict tactics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in early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Th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30(3), 775-791.
- Lee, K. B. (2006). *The study of acceptance program for marital satisfaction enhancement* [Doctoral dissertation, Seoul Women's University].
- Lee, K. H. (1998). *Marriage types classified by wives' perception of marital conflict and intimacy*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Lee, K. S., Hahn, D. W. (2005). The Characteristics of partner and relationship ideals in intimate relationships.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9(1), 163-184.

- Lee, M. S., Kim, J. S. (1995). *Preliminary research for standardization of dyadic adjustment scale*. Annual Conference of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5(1), 291-299
- Lee, S. H. (2011).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marital satisfaction enhancement program for wives based on integrative behavioral couple therapy* [Doctoral dissert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Lee, S. M. (1995). *Factor Analysis 1: Focusing o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Hakjisa.
- Lee, S. M. (2000). *Basics of factor analysis*. Kyoyookbook.
- Levin, M. E., Luoma, J. B., Lillis, J., Hayes, S. C., & Vilardaga, R. (2014). The Acceptance and Action Questionnaire - Stigma (AAQ-S): Developing a measure of psychological flexibility with stigmatizing thoughts. *Journal of Contextual Behavioral Science*, 3(1), 21-26. <https://doi.org/10.1016/j.jcbs.2013.11.003>
- Lillis, J., & Hayes, S. C. (2008). Measuring avoidance and inflexibility in weight related problem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Consultation and Therapy*, 4(1), 30-40. <http://dx.doi.org/10.1037/h0100829>
- Long, E. C., Angera, J. J., Carter, S. J., Nakamoto, M., & Kalso, M. (1999). Understanding the one you love: A longitudinal assessment of an empathy training program for couples in romantic relationships. *Family Relations*, 48(3), 235-242. <https://doi.org/10.2307/585632>
- Mairal, J. B. (2015). Integrative Behavioral Couple Therapy (IBCT) as a third-wave therapy. *Psicothema*, 27(1), 13-18. <https://doi.org/10.7334/psicothema2014.101>
- McHugh, R. K., & Otto, M. W. (2012). Refining the measurement of distress intolerance. *Behavior Therapy*, 43(3), 641-651. <https://doi.org/10.1016/j.beth.2011.12.001>
- Neff, K. D. (2003).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cale to measure self-compassion. *Self and Identity*, 2(3), 223-250. <https://doi.org/10.1080/15298860309027>
- Neff, L. A., & Karney, B. R. (2005). To know you is to love you: The implications of global adoration and specific accuracy for marital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3), 480-497. <https://doi.org/10.1037/0022-3514.88.3.480>
- Park, H. S. (201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multicultural receptivity scale based on Rasch measurement mode.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7(2), 453-477.
- Park, S. A. (2010). *Fear of emotions and distress tolerance in young adults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features*. Ma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Park, S. H., Lee, J. H., Kim, E. J. (2011). Effects of the multi-cultural program on the promotion of cultural sensitivity in college students.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18(6), 123- 145.
- Péloquin, K., & Lafontaine, M.-F. (2010). Measuring empathy in couples: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for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2(2), 146-157. <https://doi.org/10.1080/00223890903510399>
- Peterson, B. D., Eifert, G. H., Feingold, T., &

- Davidson, S. (2009). Using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to treat distressed couples: A case study with two Couples. *Cognitive and Behavioral Practice*, 16(4), 430-442.
<https://doi.org/10.1016/j.cbpra.2008.12.009>
- Seo, J. W., Kwon, S. M. (2014). Validation of the Korean-distress intolerance index in a Korean college sampl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3(4), 783-801.
- Sevier, M., Atkins, D. C., Doss, B. D., & Christensen, A. (2015). Up and Down or Down and Up? The Process of Change in Constructive Couple Behavior during Traditional and Integrative Behavioral Couple Therap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41(1), 113-127.
<https://doi.org/10.1111/jmft.12059>
- Simons, J. S., & Gaher, R. M. (2005). The Distress Tolerance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elf-report measure. *Motivation and Emotion*, 29(2), 83-102.
<https://doi.org/10.1007/s11031-005-7955-3>
- Song, J. A. (2006). Validity of Imago couple therapy's contents and effects of application of the Imago couple therapy.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4(4), 87-99.
- Spanier, G. B. (1976). Measuring dyadic adjustment: New scales for assessing the quality of marriage and similar dya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5-28.
<https://doi.org/10.2307/350547>
- Stöber, J. (2001). The Social Desirability Scale-17 (SDS-17): Convergent validity, discriminant validity, and relationship with age.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17(3), 222-232.
- Teven, J. J., McCroskey, J. C., & Richmond, V. P. (1998). Measurement of tolerance for disagreement. *Communication Research Reports*, 15(2), 209-217.
<https://doi.org/10.1080/08824099809362115>
- Thomae, M., Birtel, M., & Wittemann, J. (2016). *The Interpersonal Tolerance Scale (IPTS):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Annu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Political Psychology, Warsaw, Poland, 13th - 16th July.
- Whang, S. M., Kim, D, W. (2004). The study on korean's lifestyles and its' generational identity: A psychological model of "generational differences" in Korea.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8(2), 31-47.
- Won, H. J. (2018). *The effect of exercise flow of badminton club members on job stress and interpersonal harmony*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1차원고접수 : 2020. 02. 27.
 2차원고접수 : 2020. 07. 08.
 3차원고접수 : 2020. 09. 27.
 최종게재결정 : 2020. 10. 1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Acceptance for Differences in Couple Relationships Scale based on IBCT

Ah Young Lim

Hoon-Jin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Institute of Psychologic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aimed to develop and validate a self-report scale to measure attitudes toward accepting differences in couple relationships. The Integrative Behavioral Couple Therapy (IBCT; Jacobson & Christensen, 1996) was used as a theoretical model in the study. ‘Acceptance for differences’ was defined as an attitude acknowledging inter-partner differences and trying to develop intimacy through those differences without expecting one’s partner to change. Based on primary concepts of IBCT, five factors were constructed for the Acceptance for Differences in Couple Relationships Scale (ADCRS), and 75 preliminary items were developed based on existing measures of acceptance and couple relationships. In Study 1, three hundred and twenty-seven college students and 68 adults completed the 75-item ADCRS. Results showed the ADCRS consists of 22-items and five factors, as follows: (i) Tolerance for Difference (TD), (ii) Perspective taking for Difference (PD), (iii) Respect for Difference (RD), (iv) Growth through Difference (GD), and (v) Distancing for Difference (DD). In Study 2, three hundred and five adults and 136 college students participated to investigate the instrument’s reliability and validity, and relationships between the ADCRS and related scale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showed the five-factor model as the best model fit, and the hierarchical model as reasonable. The ADCRS showed good internal consistency, 2-week test-retest reliability, and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In addition, the fit of the Bifactor model assuming the general factor and five group factors was good, and it was concluded that it is reasonable to use the total score as a single dimension. The ADCRS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satisfaction in couple relationships, especially for married couples. The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 IBCT, Acceptance for Differences in Couple Relationships Scale, Satisfaction in Couple Relationship